

# 용담호 맑은물 보전 박차

## 진안군, 환경기초시설 12개소 76억원 투입 수질개선 노력 총력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데미션 발원지로 대표되는 섬진강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상수원의 맑은 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에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아 2025년까지 총사업비 931억원을 투입해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마을하수도 10개소, 하수관로 4개소)를 확충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용담호로 유입되는 주요하천 중 비점오염원 유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기철 많은 오염원이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비점오염원 저감을 용담호 1급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환경기초시설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마을하수처리시설 11개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1개소 등 8개 읍면 30개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불명수 유입으로 처리장 용량 한계에 도달하여 하수



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진안 공공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를 전면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착공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불명수 유입 차단과 처리장 운영 애로가 해소되어 용담호로 방류되는 최대 처리량의 운영효율을 개선으로 상수원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9월 다량의 비점오염원 유입과 이상기후로 인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용담호 유입 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진안천 상류 수변구역 내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3개소와 함께 인공습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비점오염원 저감과 함께 내륙형 습지 조성으로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도내 암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 도지사 표창 수상

전라북도·전북지역암센터(소장 김정수)가 주최·주관한 2016년도 전라북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를 29일 전주 고교담에서 14개 시군 암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 업무관련자 45명(시군당 3명내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2016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수행을 평가하고, 2017년 사업의 추진내용과 방향을 공유하며, 우수 사례전파, 정보교환 등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암관리사업(건강검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 대회를 통해 장수군 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지역내에 암 검진기관이 없는 여건에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했다.



평가기준은 ▲암 예방 교육·캠페인 활동(10점) ▲검진수검률(80점) ▲우수 사례발굴(10점)을 토대로 세부지표에 따라 기준점을 적용해 총 합계 산출로 평가했다.

이 날 프로그램에는 김정수 전북지역암센터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의 인사말과 △'16년 평가결과 및 '17년 사업방향 안내를 노영실 전라북도

건강안전과장이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는 최우수기관시상 시군 2개소와 △전북지역 암센터 암 관리사업 안내를 포함한 총 3백만 원으로 주민들에게 공병 1개 당 100원씩 공병 수거 대금을 지급했다"며 "내년부터는 상 하반기 2회 수거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면에서는 작별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별로 설치돼 있는 농약병 수거함과 보관함에 모인 공병을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앞장 서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강성환 회장은 "수익금 전액은 연말 불우이

# 완주군 혁신도시 인문학 특강

완주군 이서면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해 무료 인문학 강좌를 마련한다.

완주군 이서면은 30일부터 12월 1일, 12월 7일과 8일 2주에 걸쳐 '2016 혁신도시 인문학 특강'을 이서문화의 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학 특강 및 일정은 ▲ 11월 30일 음악평론가 임진모(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등 다수 출연)의 '대중음악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 12월 1일 미술사학자 이흥재(전 도립미술관장)의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 12월 7일 일러스트레이터 박장(본명 장석원 / 방송인)의 '술자리에서 나누는 밤의 인문학' ▲ 12월 8일 카

툰경영연구소장 최윤규의 '영동한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12월 1일과 8일은 대금 연주 및 색소폰 연주 등 간단한 공연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수·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완주군 이서면이 주최하고 별마루 작은도서관·이서문화의 집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서면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 특강은 혁신도시 완주군민은 물론 전주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특강에 대해 반응이 좋을 경우



정례화 또는 강좌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의료는 무료이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서면사무소 혁신도시팀 (290-3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 산서면 '색소폰 선율 따라 군민을 위한 송년회'

## 내달 3일 풍물전시관에서

장수군 색소폰연합회(회장 유일권)가 주최하고 산서 산울림 색소폰동호회(회장 이부섭)가 주관한 '색소폰 선율 따라 군민을 위한 송년회'가 오는 12월 3일(토) 11시부터 12시까지 청정지역인 산서면 풍물전시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 음악회는 장수문화원(원장 권승근)의 후원으로 한국회(장수군 기획조정실장)의 28명인의 색소폰 동호회 인물 및 관계자, 자원봉사자, 가족, 음악애호가 등을 모시고 옛노래와 인기 트롯트 가요들로 귀에 익숙하고 포근한 윤율과 웅장한 선율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음악회는 1부와 2부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1부는 ▲목표의 눈물(서근원) ▲여자의 일생(이강대) ▲넙은 먼곳에(유일권) ▲남자라는 이유로(최환범) ▲뜨거운 안녕(최규현) ▲겨울잠미(최정기) ▲필레꽃(이원빈) ▲그때 그사람(유영수) ▲비내리는 고모령(강성인) ▲누가 물어(김양이) ▲하루밤 풋사랑 (형남민) ▲베사메 무츠(송창록)의 색소폰 순으로 무대가 이어지며, 내마음 별과 같이는 부부듀엣으로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녹일 예정이다.

또 오키나와의 특별 출연으로 1부 무대를 마무리 장식하고, 2부는 한국

희년의 유리벽사랑을 시작으로 ▲그 겨울의 찻집(이형민) ▲가거라 삼팔선 (유상일) ▲울어라 열풍아(박인주) ▲아세(라구현)▲체리핑크 맘보 (박문용)▲장독수(장민) ▲물지 마세요(한인석)▲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김경삼) ▲ 나는 행복한 사람 (김희숙) ▲메지야(최규현) ▲남원의 애수(추영옥)의 마지막 무대로 추억속, 눈송이꽃다발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 문의는 산서 산울림 색소폰 이부섭동호회회장에 문의(010-3684-3731)하면 되고, 정오 12시부터는 오찬과 다과를 준비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 제설제 구입비용 재정지원·협조체제 구축 공로



(사)한국환경정보연구원(회장 이재성)는 최근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진안군 가산거구)을 '2016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하고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 공덕동)에서 시상했다. 이한기 의원은 용담호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근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전라북도 최대 식수원지역으로 겨울철 영하갑상 사용에 따른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오염 부분으로 영하갑상 남용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과 용담호 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의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제안하고 진안군과 도로공사에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여 전라북도로부터는 50여톤의 친환경 제설제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금강유역환경에서 1억여원의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용 재정지원을 받아 매년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을 받은 이한기 의원은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서 선정돼 기쁘지만 책임감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보호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만전

무주군 농업인들이 직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수거 품목은 폐비닐과 반사필름, 사료·비료포대, 농약공병, 봉지류 등으로, 실천면 청년회에서는 회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11월 동안 25개 마을에서 농약 공병 2만 6천여 개를 수거했으며 안성면 농촌지도자회에서도 농약 공병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3톤 분량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면 청년회 김중국 회장은 "실천면 발전회 지원금(2백만 원)과 대불리 주민 최동현 씨가 출원해준 1백만 원을 포함한 총 3백만 원으로 주민들에게 공병 1개 당 100원씩 공병 수거 대금을 지급했다"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2회 수거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면에서는 작별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별로 설치돼 있는 농약병 수거함과 보관함에 모인 공병을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앞장 서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강성환 회장은 "수익금 전액은 연말 불우이

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으로 작은 실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 마을, 나아가 무주와 우리나라 환경을 살리는 큰 일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농약 공병의 수거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무주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농약 용기류 수거 우수단체 포상을 실시한다.

12월 중순까지 현장 확인과 검증 과정(1~11월 실적 기준)을 거쳐 마을단체와 청년회, 부녀회, 사회단체들 중 우수 단체를 선발할 예정으로, 대상 1개 단체에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 2개 단체에게는 각 1백만 원씩, 우수 3개 단체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주어질 예정이다.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과 투기방지, 분리배출요령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읍면 영농폐기물 수거지원반을 구성해 하천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특별블로그

## 무주군, 유치원생 대상 흡연예방 인형극 실시

무주군은 29일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대회의실에서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인형극을 실시했다.

이날 인형극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관내 9개 유치원 5세 이상 어린이 250여 명이 함께 했다.

어린이 교육극단 조이아이가 펼친 인형극 "호치와 꼬질꼬질 마녀"는 꼬질꼬질 마녀가 숲속마을 호랑이에게 단배를 원하면서 여러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숲속환경을 해친다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율동이 함께 곁들여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인형극을 관람한 어린이들은 "인형극이 재미있었다"며 "아빠가 피우는 담배가 건강에도 나쁘고 환경에도 나쁘다고 말해드려야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금연 성공의 날 행사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는 29일 금연 성공자들과 가족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금연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 150명 중 성공자와 가족 100여명을 초청해 금연 수료증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금연 성공자에 대한 증서 수여 및 금연 전문가사를 초청하여 금연 후 변화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보건소는 올해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청소년 금연교실 및 금연실천 마을 등을 운영해 금연클리닉 등록자 540명 중 150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번 금연에 성공한 구계수씨(73)는 "16세부터 시작한 56년간을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워왔는데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등록해 금연에 성공을 했고 금연을 한 이후부터 몸도 가벼워지고 옷과 몸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아 가족들이 아주 좋아한다."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경찰, 실천면서 청소년 선도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여성청소년계는 29일 무주군 실천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계도 및 수능 후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섰다.

이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단속은 무주군청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민·관이 합동으로 청소년 범죄 우려 지역 및 유해업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트 및 편의점에서 업주 및 종업원에게 청소년 선도 활동을 판매할 때 청소년 여부 등을 꼭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최성규 서장은 수능 후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최선을 다해 청소년 선도 활동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마을·아파트 도농소통 교류회 가져

완주군이 공동체 사업의 노후우 및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농소통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28일 봉서골 권역센터에서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마을과 아파트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체간 도농소통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에는 농촌지역의 완주군 마을공동체 협의회 회원, 완주군 이장협의회장단과 아파트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이장, 아파트 르네상스 공동체 활성화 단체 대표 등 농촌마을 및 아파트 공동체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완주군 농촌과 도시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형식의 아이디어 워크숍이 진행됐다. 완주군공동체협의회장인 안덕마을 유영배 대표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완주에도 훌륭한 먹거리, 체험거리가 많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허은자 혁신도시 LH10단지 이장(아파트공동체 회원)은 "그동안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삶의 재미를 이곳 완주에서 누리며 살 수 있길 기대하고,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및 농촌관광 등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계기로 완주의 농촌마을과 도시형 아파트 거주자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10여 년간 마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완주군 표 공동체 사업이 정부 단위 마을사업의 표준모델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이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인구의 급증에 맞춰 도시형 공동체 육성을 위한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경찰, 농기계 사고 예방 야광 반사스티커 부착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의 위치가 잘 파악되지 않아 자동차가 농기계의 후면을 추돌하며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추돌주의' 야광반사스티커 부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가을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안전운전', '추돌주의' 야광반사스티커 부착 활동이 야간에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빛이 반사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농기계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이에 장수경찰서는 야광반사스티커 부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